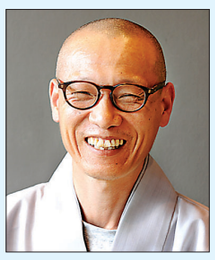
“열린 공간서 문화 교류해요”

감성소통홀 만든 수안 스님
월 1회 무료 콘서트 열어



황도 12궁 중 하나인 천칭자리는 공명정대한 정의를 가늠하는 저울을 의미한다. 인간사에 빗대어 보면 무슨 일이든 극단적으로 달리는 일 없이,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한데 광주에도 ‘천칭자리’가 있다. 이는 광주 불교계의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감성소통홀’을 표방하는 천칭자리는 시민들과 불교적 감성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소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운영자가 바로 노래하는 수안 스님〈사진〉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출가 전 전통목공예를 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실내인테리어를 맡아 60여석의 객석을 갖춘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천칭자리는 불교의 문화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음악과 예술 등을 포함하는 불교문화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안 스님은 백양사 포교국장을 역임한 포교전문가다. 법문 · 수행과 더불어 음악 · 문화를 통한 포교가 젊은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임을 깨닫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매한 뒤 무대를 광주 도심으로 옮겨 노래하는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천칭자리에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무료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맛있는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커피, 연차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좋은 노래,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스님의 콘서트에는 늘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일상을 노래하는 스님답게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은 대중의 호평을 받는다. 이외에도 천칭자리는 개관 이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야단법석이 됐다. 인문학강좌를 비롯해 북콘서트, 시낭송 모임, 통기타 동호회 활동, 공예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이곳을 거쳐 갔다.

수안 스님은 앞으로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우리 절, 우리 스님’을 주제로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각 사찰 스님들과 공개방송을 천칭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절, 우리 스님 이야기는 신도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향후에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소하게 콘서트를 열고 싶습니다. 그 속에 곧 부처님 이야기가 담기는 것이니까요.”

도심문화포교당 역할을 하는 천칭자리. 수안 스님은 오늘도 새로운 공연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악산 걸으며 몸 · 마음 힐링

지월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걷기명상이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걷기명상 행사가 열렸다.

6월 4일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은 ‘지월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명상’을 개최했다. 김제 귀신사에서 금산사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귀신사를 출발해 뽕나무 아래에서 잠시 좌선에 들어보기도 하고 숲속 나무 그늘에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묵언패를 목에 걸고 3시간 남짓 걷는 동안 편백나무의 깊은 향내를 맡아보기도 하고 지월 스님으로부터 좌선과 명상에 대한 지도를 받고 명상을 체험했다.

지월 스님은 “모악산을 걸으면서 명상을 함께하면 마음을 열 수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걷기명상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복숙 불자는 “스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 하셔서 나름대로 발등을 보면서 걸어봤다”며 “다음에는 조금 더 성장한 마음을 바탕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들 봉사원력 닿은 베트남 초등학교

전북 마하연승가회 봉사단체 ‘우리나눔’
창립 후 베트남 어린이 지원사업 나서

태고종 스님으로 구성된 모임
베트남 초교에 각종 물품 후원
자매결연 후 지속적 활동 약속
연탄나눔 등 국내 봉사 계획도



전북 마하연승가회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생활용품 및 학용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태고종 스님들로 구성된 마하연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가 나눔봉사단체 ‘우리나눔’을 결성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해외구호에 나섰다.

마하연승가회 우리나눔은 5월 18~2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구찌구 인근 탄 텅호이 초등학교(교장 웬방썬)를 방문해 전교생 566명에게 한국서 가져간 청바지, 어린이 옷 등 생활용품 1000점과 소고 50개, 간식 등을 전달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140명을 선정해 책가방 140개, 노트 1400권, 연필 1400개, 지우개 280개, 삼각자 140세트 등 총 34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선물했다.

회장 승천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진안 마이산탑사 진성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정읍 두승사 혜담 스님,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 김제 용봉사 법전 스님, 김제 쌍용사 정수 스님, 임실 덕봉암 도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봉사단원들로 구성된 마하연승가회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1대1 지속지원과 식수원 개발, 교실 건립 등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5월 18일 탄 텅호이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용품 전달식에서 회장 승천 스님은 “한국에서 오신 스님들과 신도들을 성대히 환영해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웬방썬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해주신 마하연승가회 위원들과 원주 보살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이곳 초등학교를 들어서는 순간 해맑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기뻤다” 며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베트남에서 제일가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웬방썬 탄 텅호이 초등학교장은 “한국에서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직접 선물도 주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다니 뭐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다”며 “지난 나쁜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후원해주는 한국 태고종 스님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기위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하연승가회는 봉사단체 ‘우리나눔’은 베트남 초등학교 후원사업 외에도 베트남전 전쟁 후유증 치유사업,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 현지 여인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들인 라이 따이한 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릴레이 연탄나눔, 자비의 쌀 나눔사업, 자비의 연료 나눔사업 등 국내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베트남, 서로 힘이 돼 주길”

참좋은우리절, 6월 9일
‘베트남 교민의날’ 열어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교민의날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인과 불자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양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6월 9일 경내 큰법당에서 ‘재 전북 베트남 교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베트남 닥락성 팜응녹니 인민위원장(도지사급)과 이비어니어 성의회의장(도의장급)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교민, 불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베트남 교민의날 행사는 그동안 베트남 등 해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노동자 등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회일 스님의 해외이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열리게 됐다.

양국 국가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홍현주 전북 베트남 원오도량회장의 환영사,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장의 인사말, 한국 전통공연에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음식으로 준비한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측 주요인사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양국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응웬하이닝 부위원장은 “베트남 교민들을 위해 경제, 문화교류를에 앞장서고 있는 회일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교민여러분들은 베트남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사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대표단의 전북 방문을 주선한 회일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며 “나아가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락성 간의 교류 · 협력 강화에 전북지역 거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베트남 대표단은 전라북도의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전주시장을 예방하고 양 지방정부간의 경제, 문화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뒤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생명평화단, 생명 · 평화 모내기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6월 4일 ‘생명의 모를 심어 평화의 쌀을 키우자’는 주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농촌마을에서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불교네트워크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평화와 사랑의 실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날 모내기 체험은 노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손으로 직접 모를 심으며 힘든 노동을 몸소 체험하고 농부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오종근 단장은 “손 모내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준비했다”면서 “모내기 체험으로 농사를 해봤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농부님들의 수고로움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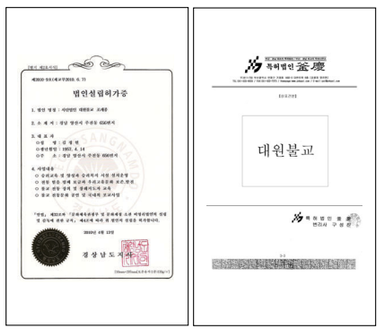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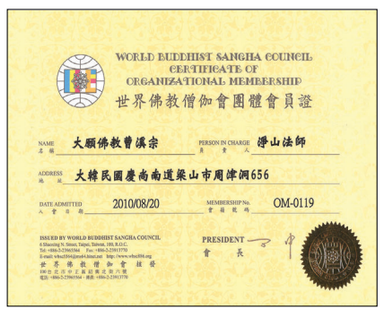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